

# ‘갤 버즈3’ 마감불량 등 품질 논란… 에어팟 반사이익 누리나

삼성, 사전판매 불량 교환·환불  
제품 높낮이 차이·마감불량 하자  
애플 신형, 카메라 탑재 등에 관심↑  
개선된 착용감·디자인 혼합 예정

삼성전자의 신형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3’가 품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애플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전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버즈3의 마감 불량 등 품질 문제가 제기된 직후 사과에 나섰지만 고객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애플이 출시 예정인 신형 에어팟 시리즈는 품질개선에 주력한 것은 물론 카메라 탑재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에서 이탈한 고객을 애플이 흡수 할지 관심이 쏠린다.

## ◆버즈 품질 문제, 공식출시 전 해결 ‘관건’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버즈3 사전판매 불량에 대해 교환 및 환불을 약속했다. 지난 19일 삼성닷컴에는 사과문과 함께 “24일 국내 공식 출시 이전까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꼼꼼히 점검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공지가 게시됐다.



갤럭시 버즈3 화이트 색상.



/삼성전자 애플 홍대점.

/뉴시스

문제가 된 갤럭시 버즈3는 품질 불량 지적을 받고 있다. 양쪽 제품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거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LED에서 불빛이 미치는 위치나 밝기가 양쪽이 다른 경우가 보고됐으며 이어팁이 쉽게 찢어진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는 전자 대비 이번 신형 디자인이 대폭 변경되면서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5년만에 처음으로 갤럭시 버즈의 디자인을 변경했다. 삼성은 통화 품질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 조롱해왔던

에어팟의 ‘콩나물’ 디자인을 닮은 모양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검수인력을 늘려 품질 점검 등을 진행 중인데 오는 24일 국내 공식 출시 전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에 갤럭시 버즈3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애플의 신형 에어팟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갤럭시 시리즈와 에어팟 시리즈는 가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호환 가능해 단말기와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제품을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준다.

## ◆애플 신형 에어팟, 개선된 품질·카메

## 라 탑재’ 기대

애플은 올해 전작과 대폭 달라진 4세대 에어팟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애플이 2세대 에어팟, 3세대 에어팟 판매를 중단하고 4세대 에어팟 일반 버전과 고급형 버전 2개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팟4는 짧은 기둥을 포함해 에어팟3와 에어팟 프로의 디자인을 혼합한 모습을 특징으로 할 예정이다. 에어팟 프로처럼 교체 가능한 이어팁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개선된 착용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 모델과 고급형 모델은 노이즈 캔슬링 지원 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애플이 에어팟4 생산량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올해 에어팟4를 애플이 2000만~2500만 대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애플 사상 최대 규모의 에어팟 생산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은 전작인 에어팟 3세대와 비슷한 25만원 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급형 에어팟 4세대는 조금 더 비쌀 전망이다. 에어팟 프로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어팟 프로 2세대는 35만 9000원이다.

애플은 특히 오는 2026년 신형 에어팟에 적외선(IR)카메라도 탑재된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목표는 카메라 달린 에어팟을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프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해 공간 음향이 강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버즈는 삼성전자의 최대 규모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4일 공식 판매분부터는 검수를 마친 제품만 판매될 예정이며 해외서는 사전 예약 파매는 진행중이지만 배송을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LG전자, 고객 제안 ‘업가전 아이디어’ 1.6만건 돌파

2년간 한·미 이용자 제안 아이디어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신기능 반영  
업가전 출시 뒤 씽큐 앱 연동 늘어나

LG전자가 2022년 ‘업(UP)가전’을 선보인 이후 2년 만에 한·미 이용자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1만6000건을 돌파했다.

23일 LG전자는 업가전 선포 이후 현재까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 총 24종의 업가전을 출시하고 업그레이드 콘텐츠 426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LG 업가전은 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업그레이드로 기능을 지속 추가하면서 이용자에게 점점 더 맞춰가는 가전이다. LG전자는 업가전을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직접 제안하도록 LG 씽큐 앱에 아이디어 제안 코너를 마련했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업가전 해외 브랜드인 ‘씽큐 업’을 런칭했는데, 미국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소통 채널을 통해 들어온 업가전 아이디어 제안은 지난 6월 기준 1만6000건을 넘었다. 아이디어 제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들어온 총 제안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

제안을 기반으로 새로 개발한 대표적 기능으로는 집안 어디서나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도록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가전에 적용한 ‘현재 시간 표시’, 미세먼지와 습도에 맞춰 스타일러 동작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스마트케어’, 플라스틱 용기를 변형 걱정 없이 세척하는 식기세척기의 ‘플라스틱 코스’ 등이 있다.

세탁이나 건조를 끝내고 통을 주기적으로 회전시켜 세탁·건조물의 구김을 줄여 주는 ‘종료 후 세탁물 케어’, 반려동물의 배변이나 외출시 진흙, 잔디 등

으로 생긴 생활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세탁기의 ‘펫케어 코스’도 호응이 높다.

업가전 출시 뒤 LG씽큐 앱에 가전 제품을 연동하는 사람도 늘어난 추세다. LG 씽큐 앱에 제품을 연동하는 등록률은 출시 전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태인 LG전자 H&A스마트제어연구소장은 “고객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부터 새롭게 제안하는 아이디어까지 귀 기울여 고객 경험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차별화된 공감지능(AI) 가전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왼쪽부터) 파브리치오 보자니(Fabrizio Boggiani) 레오나르도 항공전자·임무장비 총괄부사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루카 피콜로(Luca Piccolo) 레오나르도 항공사업부문 부사장, 박혁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

/한화

## 한화시스템

## AESA 레이다 공동 개발

한화시스템이 미래 수출 주력 제품인 AESA레이다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2일(현지 시각)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 전시에서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공랭식 AESA 레이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최초’ 공랭식 AESA 레이다 개발사인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랭식 AESA 레이다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공격기 ▲소형 정찰기 ▲각종 무인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여러 AESA 레이다 라인업을 확보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노린다.

‘공랭식 기술’은 발열이 큰 레이다를 공기만으로 냉각해 기존의 수랭식과 달리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레이다를 소형·경량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박대성 기자 iunmids@

# 현대차, 인니에 ‘EV 충전 얼라이언스’ 구축

민간 충전 사업자 6개 업체와 동맹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현지 기업과 동맹을 구축한다.

현대차는 19일(현지 시간) ‘가이킨도 인도네시아 국제 오토 쇼 2024’에서 인도네시아 민간 충전 사업자 6개 업체와 ‘현대 EV 충전 얼라이언스(연합체)’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대차 전기차(EV) 고객은 ‘마이현대’ 앱으로 별도의 회원 가입, 결제 수단 등록 없이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타 업체의 충전 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앱으로 여러 업체의 충전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 및 결제할 수 있는

로밍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얼라이언스 구축에 참여한 7개 업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총 429개소 696기의 EV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민간 EV 충전기의 약 97%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현대차는 EV 신차 고객에게 현대 EV 충전 얼라이언스 소속 업체의 충전소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충전량 50kWh를 매월 제공하는 ‘EV 충전 서비스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EV 충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충전량은 오는 8월부터 사용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 에코프로비엠, 나트륨이온전지 양극재 개발

산업부 지원 과제 주관사 선정

삼원계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을 선도해 온 에코프로비엠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나트륨이온전지(SIB) 양극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과제인 ‘나트륨이온전지 양극소재개발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한국전기연구원, 동아대학교, 성균관대학교도 참여하는 산학 연구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비로 52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참여 기관 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6억원이다. 향후 4년 동안 기술개발 협력이 진행된다.

/차현정 기자 hyeon@